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2008년 유로지역 생명보험시장 대폭 축소

- 2008년 세계보험시장(인플레이션 감안)은 2.0% 하락하였는데, 이는 선진국 특히, 유로지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대폭적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.
 - 2008년 선진국의 생·손보 시장은 전년대비 각각 5.3%, 1.9% 하락하였으며, 非선진국의 생·손보 시장은 오히려 14.6%, 7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생명보험시장 축소가 2008년 세계보험시장을 가장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됨.
 - 선진국의 생명보험시장 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, 일본시장(점유율 14.7%)은 9.6% 증가하였고, 미국시장(점유율 23.2%)은 3.4% 하락하였으며, 유로지역시장(점유율 39.1%)은 11.9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유럽국가 중심의 생명보험시장 축소가 세계보험시장을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.
- 유로지역 생명보험시장의 축소는 주로 금융위기發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한 변액연금 및 주식 연계 보험상품의 판매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.
 - 2008년 유로지역 내 변액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, 이탈리아, 프랑스, 아일랜드로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급증으로 인해 변액연금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이들 각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15.7%, 15.6%, 13.4%, 41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, 영국은 부유층 대상 변액연금 조세혜택 철회, 프랑스는 경쟁상품의 금리 인상, 아일랜드는 극심한 경기침체가 각국의 변액연금시장의 위축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됨.
 - 반면,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호조로 변액연금시장 축소로 인한 생명보험시장 위축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으며, 독일은 생명보험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'세금감면 적용 연금상품'의 판매추세에 변동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(독일 생명보험시장 '07: -1.6%→'08: -1.0%)
 - 한편, 스페인은 보장형 변액연금(2008년 하반기에 단종)의 폭발적 판매로 오히려 생명보험시장이 전년대비 10.0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

(Swiss Re, SIGMA, World insurance in 2008, 7/1)